

문화



◀'한울림 오페라에의 초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상무지구 음악감상실 한울림.

Opera

“오페라, 알고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클래식 애호가 안철씨 광주에 첫 전문강좌... 음악감상실 '한울림' '베토벤'서

클래식은 다른 문화 장르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오페라'는 더욱 문턱이 높은 장르로 인식돼 온 게 사실이다.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오페라 강좌가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광주는 불모지나 마찬가지다. 최근 광주에서도 체계적인 오페라 감상을 돕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가을비가 내리는 4일 오전 광주 상무지구 음악감상실 한울림. 이곳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12시10분까지 '한울림 오페라에의 초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클래식 애호가 안철씨가 진행하는 강좌는 이론과 영상 감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테너, 베이스, 바리톤 등 남성 성악가들에 대한 이론 강의에 이어 '라 트레비아타', '리갈레토',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등 유명 오페라 중 남성 성악가들의 대표곡을 감상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1시간 40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강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오페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이들은 20여명. 오전 시간이라 30~50대 주부들이 대부분이지만 40~50대 남자 회원들도 눈에 띄었다.

강좌는 한울림에서 안씨가 진행중인 수요일영상모

임 참가자들이 안씨에게 '오페라 감상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며 의기투합, 클래스를 꾸리면서 시작했다. 현재는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이 30여명에 이르렀다.

회원 중에는 원래 클래식과 오페라에 관심 많았던 이들도 있지만 '새롭게' 입문한 경우도 많다. 오페라에 대해 전혀 몰라 솔직히 두렵기는 했지만 첫 시간이 너무 행복해 오페라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도 있고, 다른 클래식 분야에 비해 오페라는 독학하기 어려운 장르라는 점에서 강좌가 아주 유용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도 있었다.

강좌를 맡은 안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클래식 애호가다. 소장 클래식 CD와 DVD가 5000여장에 이르고 클래식 음악 방송 등에도 출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울초 재직하던 금호고 영외교사에서 명예퇴직한 안씨는 베토벤과 한울림 등에서 다양한 음악감상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었다.

안씨가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건 오페라 강의. 다른 장르에 비해 아무래도 조금은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장르라 2~3년전부터 꾸준히 자료를 준비해왔다. 이번 강좌에 사용하고 있는 관련

책자 역시 안씨가 직접 제작했다.

또 강의 사이사이 보여주는 오페라 영상 역시 소장하고 있는 500여권의 오페라 DVD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직접 편집해 보여주고 있다.

강의는 오페라의 역사, 성악가 등 기초과정을 3~4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기본 공부가 끝나면 오페라사(史)의 유명한 오페라 전작 감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오전 10시30분)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잡은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도 열리고 있다.

현재 베토벤에서는 20여명이 강의를 받고 있다. 베토벤에서는 '오페라의 초대' 뿐 아니라 '클래식 영상 감상'(화요일), '발레감상'(금요일), '영화감상'(토요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 할 것.

안철씨는 "가르치는 게 곧 배우는 것이라 내 자신이 즐기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오페라 강좌를 해보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울림 062-375-2214. 베토벤 062-222-84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 들녘 물들인 서정적 화풍

서양화가 한희원·김성석 2인전

7~13일 대구 중앙갤러리

참 맑은 가을하늘, 화폭에 담겼다. 서정적인 화풍으로 깊은 밤과 마을 풍경을 그리고 있는 서양화가 한희원씨가 오는 7~13일 대구 중앙갤러리에서 서양화가 김성석씨와 함께 2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한희원씨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느끼게 하는 신작들을 선보인다. 푸른빛이 감도는 밤하늘에 하얀 별이 무수히 반짝이고, 어렴풋하게

빛나는 허름한 창문의 불빛을 대비시켜 고즈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가을 들녘에서 외롭게 바람을 맞고 있는 은행나무의 화려한 색깔과 흔들림을 포착한 '은행나무 사람' 등의 작품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는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12회 개인전을 가졌다. 오지호 미술상 기념전, 한국현대미술의 투영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그룹 '새벽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다리' '무등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53-425-0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별, 짝사랑'

행복을 창조하는 거리 축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충장로축제 추진위, 6일 학술토론회

충장로축제(5~10일) 추진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 일명 '우다방'에서 거리 축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 거리축제 학술 토론회'를 연다.

'행복을 창조하는 거리 축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

원) 연구위원, 윤성진(슈스컴퍼니) 예술감독, 조경환(부평아트센터) 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 김병민(전남대 사학과) 교수, 배윤수(아트트라 엔터테인먼트) 감독, 조정국(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집행위원장, 박진현(광주일보) 문화예술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거리 축제의 조건과 성공사례 ▲프로그램 구성과 연출 ▲장소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 ▲충장로축제의 바람직한 거리문화축제 모델 등을 소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연주회에 초대합니다

5일 유·스퀘어 문화관

슈만 탄생 200주년을 맞아 그의 가곡을 들을 수 있는 연주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기념연주회에는 소프라노 민숙연씨와 바리톤 박흥수씨가 무대에 올라 슈만의 대표적인 연가곡 '여인의 사랑과 생애'와 '시인의 사랑'을 연주한다.

1840년 작곡된 '여인의 사랑과 생애'는 8개의 곡으로 구성된 연가곡으로 한 여인이 처녀시절부터 미망인이 되기까지 일생을 통해 겪는 삶과 사랑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형상화했다.

또 '시인의 사랑'은 하이네의 시집 '서정적 간주곡'에서 16편의 시를 발췌해 쓴 작품으로 종래의 피아노 반주 개념을 뛰어



〈민숙연〉 〈박흥수〉

넘은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한 낭만파 가곡의 정점을 이룬 작품으로 평가되는 곡이다. 연주회의 반주는 신수경 전남대 교수가 맡았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30-3064.

/김미은기자 mekim@

광주극단 '얼·아리' 고마나루향토연극제 3관왕

'매품 팝니다'로 대상·희곡상·연극상 수상



〈함수남〉 〈양태훈〉 〈이헌기〉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제 7회 고마나루향토연극제(9월 26일~10월 4일)에서 광주 극단 '얼·아리'가 대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고마나루향토연극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연극제에는 각 시도의 추천을 받은 8개팀이 참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무대에 올랐던 극단 '얼·아리'는 창

작 희곡 '매품 팝니다'를 공연, 영예의 대상(상금 2000만원)과 희곡상(함수남), 연기상(이헌기)을 휩쓸었다.

영양 돈발재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모티브로 한 '매품팝니다'는 조선시대 평민들이 양반의 매를 대신 맞아주었던 일을 마당극 형식으로 그린 작품이다.

연출은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맡았으며 이기인·김상우·정순기·임홍식·고나영·임명덕·양정인·이선미씨 등이 출연했다.

지난 1993년에 창단된 '얼·아리'는 순수 창작극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온 단체로 지금까지 '그들의 사회화', '투렌쇼' 등을 선보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8th Wine & Dine 2010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칠레 부띠끄 와이너리 페레즈 크루즈 와인 메이커스 디너. 18회 와인 & 다인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tp://www.geumsoojang.com http://www.winepartner.co.kr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MEGABOX. CINUS. 상무점, 하남점.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